

좌심실유출로 협착증의 수술요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관민, 이정렬, 김용진, 노준량, 서경필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6년 4월부터 1992년 12월 까지 48명의, 정상 방실 및 심실대혈관 연결 심장에서의 좌심실유출로 협착증 환자를 수술하였다. 연령분포는 6개월에서 17세로 평균 연령은 4.8세 였다.

섬유성 혹은 섬유근성띠에 의한 좌심실유출로 협착증 환자가 30명 (62.5%)으로 가장 많았고, 5명 (10.4%)에서 전외근비후 (anterolateral muscle hypertrophy), 8명 (16.7%)에서 심실중격이상정렬 (septal malalignment) 그리고, 나머지 5명에서는 기타 원인에 의한 좌심실유출로 협착이 발생한 경우들이었다. 11명 (22.9%)은 좌심실유출로 협착증만 단독으로 있었으나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 심장 이상을 동반하고 있었다.

좌심실유출로 협착증 수술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이용되었는데, 변형 Konno 수술 시행한 경우는 5례이었고, 대동맥하 분리성막이나 비후된 심실중격 또는 전외근을 단순히 절제해 내는 방법이 43례였다. 병원사망률은 3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여 6.25%였으며 평균 외래 추적기간은 30.8개월 이었다.

좌심실유출로 협착증 수술후 재발된 예는 전부 독립된 좌심실유출로 협착증 환자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고 (11명중 5명) 그들은 전부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다른 심장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재발을 볼 수 없었지만 처음 개심술시 좌심실유출로 협착증이 없었으나 2차적으로 발생하여 수술한 경우는 9례있었다.

좌심실유출로 협착증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과 대동맥하 분리성막 또는 비후된 전외근을 불완전 절제시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좌심실유출로의 압력차 유무에 관계없이 협착증이 진단되면 가능한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